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3-7호

2011년 경제전망: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 잡기

조혜경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 연구교수)

- I. 2010년 한국경제 평가
- II. 2011년 세계경제 전망
- III. 2011년 한국경제 전망
- IV. 2011년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I. 2010년 한국경제 실적 평가

올해 경제전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 한국경제의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작년 한국경제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6.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론 기저효과와 착시현상이 끼여 있지만 경제성장률 수치만 놓고 보면 근래에 보기 드문 호황이었다. 14.9%의 성장률과 사상 최대실적을 올린 수출 덕분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라 하겠다. 특히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은 2009년에 비해 크게 늘고 수출액 규모로도 역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민간소비 또한 연간 4.1% 증가율을 기록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국내경기와 경제성장은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수출호황에는 정부의 환율정책도 큰 몫을 담당했다. 무역흑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외국자본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왔지만 원화가치는 2009년에 비해 2.6%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신흥시장국 통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절상폭이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가 원화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 수준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이끌어왔던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2010년 말로 대체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 파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II. 2011년 세계경제 전망

경기부양책 종료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은 천차만별로 엇갈린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1%에서 4%까지 극단적으로 갈리고 유로화 위기의 진정 여부,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 여부, 곡물 및 원자재 가격불안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 이유는 고성장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중국과 재정위기의 위협에 시름하는 선진국이 동시에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의 긴축정책 강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이 고성장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성장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은 불가피하다. 2008년 말 중국정부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13%에 육박하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GDP의 5.5%로 중국에 비하면 왜소한 수준이었고 일본,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경기부양책 규모는 그보다 훨씬 낮은 1-2%대에 불과했다. 중국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은 지난해 10.3%라는 두 자리 수 성장률 기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경기과열의 후유증을 가져왔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한 중국정부는 서서히 긴축정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가격통제까지 동원해 인플레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긴축정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은행권 신규대출 규모를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7조5천억 위안으로 유지하여 8%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동시에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지난해 3%에서 4%로 상향조정했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인플레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와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고성장 기조를 고집하는 것은 올해 예상되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긴축정책을 선언하고 있어 대선진국 수출전망은 밝지 않다. 선진국의 수요 위축이 가져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수확대 정책을 유지해야한다는 성장주의자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은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시장국 성장을 견인하며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저성장의 선진국과 고성장의 신흥시장국 간의 성장 양극화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의 성장격차는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공포와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 공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경기부양책 종료 이후 선진국들은 불안한 경기회복세에 대한 처방으로 저금리정책과 양적 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기업, 가계 모두 부채와의 전쟁의 벌이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회의적이다. 유동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진국들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경제성장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긴축정책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겨냥한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흥시장국들에게 전가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III. 2011년 한국경제 전망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경제를 양분하며 공존하는 불안한 상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우선 중국정부가 발표한 8%대의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한국경제의 유일한 희망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며 중국경제의 향방이 한국경제의 최대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GDP 성장의 52%가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순수출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절반을 중국에 의존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국내 증시도 중국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상황이고 이명박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예상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중국을 믿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이 최고 4%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에 거는 기대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진출국 수출부진으로 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수출호황이 한편에서는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 증가를 낳고 다른 한편에서는 증시상승을 견인하여 민간소비도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 최대 위협요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공포이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이 한국수출에는 기회요인이지만 곡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 위협이라는 역풍을 몰고 온다. 곡물과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 달러화 약세, 글로벌 과잉 유동성, 곡물과 원자재 투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비판을 부인하고 있다. 올해 G8과 G20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러화 기축통화 문제와 곡물과 원자재 가격안정을 글로벌 경제의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럽집행위원회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금융투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사르코지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정면반박하고 나섰고 곡물과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글로벌



경기회복세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시장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인플레이 위협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결국 올해는 이명박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불안이 서민가계의 최대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원화절상을 막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다. 금리인상이 원화절상으로 이어져 수출 외출타기로 지탱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의 원화절상 방어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외환시장 개입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투자를 독려하여 자금유출을 유도하는 한편,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 통제에 나섰다. 지난 수년간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을 지향하며 자본자유화를 지상과제로 내세우던 재경부가 금융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정책기조는 747 공약의 주역이자 환율주권론을 주창하는 강만수 경제팀의 정치적 복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수출호황의 수혜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하고 서민경제는 여전히 불경기의 한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위 “서민물가”의 상승세가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 해 말 자본통제 수위를 높여가며 일정한 안전판을 마련한 후 한국은행이 뒤늦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새해에도 기습 금리인상이 이루어졌고 이명박대통령도 물가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원화절상 방어로 표현되는 수출주도 성장지상주의 정책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무역규모 1조 달러와 5% 성장률 달성이라는 올해 성장목표를 제시한 윤증현 장관은 올해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성장과 물가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 마지노선을 1100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대기업 소속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환율전망을 한결같이 1100원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 1100원 선까지 원화절상을 용인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가 수출성장에 필요한 “환율우산”을 거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인플레이 진영에 속하는 신흥시장국들이 환율방어에 적극 나서며 환율전쟁이 다시 불붙게 되면 한국정부도 덩달아 환율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공격적인 금리인상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능한 피할 것이다.


대신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한 정부의 총력전에는 마치 70-80년대의 물가단속을 연상케 하는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법이 가장 유력한 무기로 등장했고 그 대상은 공공부분뿐 아니라 민간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정부 물가단속에 발맞춰 가격인상을 철회하



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며 물가상승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상반기에 물가상승 압력을 잘 막아내고 버티면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등 정상적인 정책수단의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6월 말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 정책이 만료된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IV. 2011년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정부가 금리와 환율의 통상적인 정책수단을 외면하고 물가단속이라는 “미시적 정책”을 밀어붙여 일시적인 물가안정을 강제해낸다 하더라도 환율경쟁력이 경제금융정책의 잣대로 작용하고 성장은 중국에 의지하며 통화정책은 미국만 쳐다보는 한국경제의 허약성을 감출 수는 없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부충격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담당할 민간소비는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는 양상이 되었다. 과거 내수부양의 단골메뉴였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고 오히려 지난 시절 남발했던 부동산 부양책의 누적된 후유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며 국내경기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변질했다.

친시장과 규제완화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는 방법까지 동원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넘어서겠다는 과감성을 보이듯이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대안 모색에도 정치적 특단이 필요할 듯하다. (2011/02/07)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 통합 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 (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